



김진우·서재응이 던진 희망...기적...



◀ 김진우
2006년 이후 6년 만에
10승 고지 올라

▶ 서재응
선발 44이닝 연속 무실점
선동열 감독 기록 넘어서

서재응과 김진우가 '제 2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가을 그라운드에 불을 지졌다.
추석 연휴를 군산에서 보낸 KIA는 지난 30일 그리고 1일 갈 길 바쁜 롯데에게 이를 연속 완봉패를 안겨줬다. 1승만 거두면 4강 진출이 확정되는 롯데의 예를 태운 이는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서재응과 김진우였다.
서재응은 30일 3회 박준서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면서 선동열 감독이 가지고 있던 선발 무실점 최다 이닝 기록(37이닝)을 넘어섰다. 이후 9회까지 실점없이 27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면서 두 경기 연속 완봉승도 장식했다.
앞선 삼성전에서 아웃카운트가 하나 부족해 완봉승을 놓쳤던 김진우도 타선의 화끈한 지원 속에 1일 무사사구 완봉승을 거두며, 2006년 이후 6년 만에 10승 고지를 밟았다.
9월23일 서재응의 넥센전 완봉승과 함께 시작된 선발진의 완투완봉소가 계속되면서 4강 꿈을

KIA 막판 마운드 달구며 '제 2의 전성기' 선발·구원 등판 준비 "야구 아직 안 끝났다"

놓았던 KIA는 롯데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가을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궜다.
변화를 통한 발전이 밑거름이 됐다. 서재응은 시즌 중반 코칭스태프와 상의 해 투구폼을 바꿨다. 멈춤 동작없이 바로 공을 던지며 지구에 힘을 실었다. 슬라이더와 포크도 통했다.
서재응은 "올 시즌 감독님께 쫓겨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배웠다. 그리고 롯데전에서는 포크를 활용했다. 타자들이 투심과 슬라이더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포크로 승부를 유리하게 이끌었다"고 밝혔다.
명품 커브를 보유한 김진우는 싱커를 비장의

무기로 사용했다.
김진우는 "지난해 간간히 싱커를 던지기는 했는데 올 시즌에는 결정구로 많이 사용했다. 롯데와의 승부에서도 싱커와 슬라이더 등 다양한 공으로 승부를 했다"고 언급했다.
두 선수의 올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재응은 마지막 한차례 선발 등판을 남겨두고 있고, 김진우도 구원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10승과 규정 이닝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서재응은 아직 10승을 채워본 적이 없다. 올 시즌에도 일단 불운에 고개를 숙였지만 후반기 무실점 행진을 하면서 10승에 1승을 남겨두고 있다.

서재응은 "무실점 이닝 기록(44이닝)을 세워서 영광이고 기분이 좋다. 남은 한 차례 등판에서는 이닝 보다는 승에 초점을 맞춰서 공을 던지고 싶다. 꼭 10승을 달성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7승이라는 목표를 훌쩍 넘긴 김진우에게는 규정 이닝 진입이라는 또 다른 고지가 기다리고 있다. 두 경기 연속 완투를 했지만 규정 이닝에 0.1이닝이 부족하다. 앞으로 한 명의 타자만 더 잡아내면 규정 이닝인 133이닝을 채워 김진우의 올 시즌이 정식 기록으로 인정받게 된다.
김진우는 "1일 초반에 접수 차가 많이 나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김상훈 선배님이 긴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또 공격적인 피칭을 해 9이닝을 다 던질 수 있었다. 남은 경기에서 구원으로 나서서 규정 이닝을 채우고 싶다"고 말했다.
/군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지성·기성용·박주영 ... 코리안리거 줄줄이 패배

지는 경기 언제까지 봐야 하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의 '캡틴' 박지성(31)이 선발로 출전해 활약했지만 팀은 안방에서 웨스트햄에 패했다.
박지성은 2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로프트스 로드 경기장에서 열린 2012-201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56분여를 소화했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6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박지성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중앙과 좌우 측면, 공수를 오가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렇다할 위협적인 모습을 만들지 못한 채 후반 11분 심바 디아키테와 교체됐다.
홈에서 시즌 첫 승리를 노렸던 QPR은 웨스트햄에 1-2로 져 끝자 탈출에 실패하고 6경기 연속 무승 부진(2무4패)에 빠져들었다.
박지성은 영국 언론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경기가 끝난 뒤 박지성에게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 6을 줬지만 "경기에서 인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 일찍 교체됐다"고 평가했다.
스완지시티 기성용은 팀의 패배에도 영국 매체에서 후한 평점을 받았다.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브리태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완지시티와 스토크시티와의 정규리그 6라운드 경기(0-2 스완지시티) 후 발표한 선수 평점에서 기성용에게 7점을 부여했다.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이다.
상대팀에게 '가장 큰 위협(Biggest Threat)'이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박주영(27·셀타 비고)도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무대에서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박주영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스



퀸스파크 레인저스 박지성, 연합뉴스

페인 그라나다의 로스카르메네스 경기장에서 열린 2012-2013 프리메라리가 6라운드 방문 경기에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지난 15일 발렌시아전에서 후반 37분 교체돼 데뷔전을 치른 박주영은 22일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21분 교체 선수로 들어가 2분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고, 이번에는 풀타임을 뛰면서 팀에서 높아지는 위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셀타 비고는 박주영과 미카엘 크론-델리, 아스파스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공격을 펼쳤음에도 그라나다에 1-2로 졌다.
/연합뉴스

F1 황제 슈마허 영암서 은퇴?

메르세데스와 올 계약 만료
현역생활 연장 여부 갈림길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의 황제로 불리는 미하엘 슈마허(43·독일)가 현역 생활 연장 여부의 기로에 섰다.
F1에서 무려 7차례나 종합 우승을 차지한 슈마허는 2006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가 2010년 다시 드라이버로 복귀했다. 메르세데스와 3년 계약을 맺은 슈마허는 올해가 계약 마지막 시즌이다.
그러던 차에 메르세데스가 지난 29일 맥라렌 소속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턴(영국)을 영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슈마허의 은퇴 가능성이 제기됐다.
팀장 드라이버 2명씩 F1 대회에 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2013시즌에 기존의 니코 로스베르크(독일)와 해밀턴으로 선수 구성을 마친 메르세데스에서는 슈마허의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게다가 슈마허는 2010년 북극 이후 한 번도 1위에 오르지 못했는데 최고 성적이 3위 한 차례에 그쳐 다소 불명예스러운 두 번째 은퇴가 임박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스웨스 연구의 F1 팀인 자우버에서 슈마허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는 독일 신문 빌트의 보도가 1일 나오면서 슈마허의 현역 생활 지속 가능성이 커졌다. 자우버 팀 관계자는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슈마허가 시장에 나온다면 영입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자우버 역시 올해까지 선수로 활약한 세르히오 페레스(멕시코)가 다음 시즌부터 맥라렌으로 이적해 드라이버 시트의 한 자리가 비게 된다. 그러나 최근 스웨스 언론은 "자우버가 포스 인디아 소속의 니코 휠켄베르크 영입을 염두에 두

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슈마허가 전성기를 보낸 페라리도 이적 가능성도 제기된다. 페라리 역시 펠리피 마사(브라질)와의 계약이 올해가 지라 다음 시즌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의 새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팀 경쟁력으로 따지면 페라리가 자우버에 비해 월등히 낫다. 슈마허의 '천장'과 다름없는데다 우승 경험이나 머신의 경쟁력 등에서 F1 전체를 통틀어 최고 수준인 곳이 바로 페라리다.
자우버 팀 관계자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슈마허가 페라리나 메르세데스에서 활약할 때처럼 좋은 대우를 해주거나 경쟁력 있는 머신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종합해보면 슈마허는 은퇴 후 F1을 완전히 떠나거나 아니면 메르세데스 등의 팀에서 임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면 현역으로 남아 자우버 또는 페라리로 이적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슈마허는 7일 일본 스즈카 서킷에서 열리는 재팬 그랑프리에 이어 12일부터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펼쳐지는 코리아 그랑프리에도 출전한다.
/연합뉴스

내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10월 4~6일 영암서 개최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2013년 대회 일정이 확정됐다.
국제자동차연맹(FIA)은 9월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월드 모터스포츠 평의회를 열고 다음 시즌 F1 그랑프리 일정을 정했다고 1일 F1 인터네트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013시즌 개막전은 3월17일 호주 대회로 열리고 11월 브라질 대회까지 모두 20라운드로 진행된다.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3년 10월4일부터 사흘간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

는 일본 대회에 이어 한국 대회가 열리지만 2013년에는 코리아 그랑프리 다음 주에 일본 대회가 이어진다.
한편 올해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12일 연습, 13일 예선 레이스를 거쳐 14일 결선이 전 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다.
연습일이 1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에 출전하는 12개 팀 드라이버와 관계자들은 이번 주초부터 일본으로 이동, 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준비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순천만 보며 호쾌한 티샷



부영CC 퍼블릭 18홀 개장 ... 4계절 푸른 잔디서 라운딩

생태도시 순천에 남해를 바라보며 4계절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골프장이 문을 연다.
3일 '부영 컨트리클럽(이하 부영C.C)'이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대에 18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을 정식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신대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부영C.C는 총면적 84만2238㎡ 규모에 코스 길이 6587m로 도심과 인접한 곳에 위치했다. 자연 친화형의 설계로 주변 경치와 조화를 이룬 부영C.C는 순천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멀리서 내려다보면서 호쾌한 샷을 날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중 푸른 잔디를 볼 수 있는 부영C.C는 순천만에서 볼 수 있는 4계절 라운딩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수목과 벚기, 해저드(물웅덩이) 등 다이내믹한 코스가 마련돼 골퍼들의 관심을 끈다. 확 트인 조망을 자랑하는 지상 2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는 대형 로비, 사우나, 대식당, 연회장, 프로샵은 물론 넓은 주차장과 고품격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늘집은 남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골퍼들에게 자연속에서 피로를 씻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용요금은 그린피가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 13만원이며 예약은 이용일 3주전부터 홈페이지(www.scooby-oungcc.co.kr), 전화(061-816-5533~4), 팩스(061-816-5539)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jy@